금주의 법구-〈아함경〉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6월 6일)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학제 개편 불가피" VS "전통교육으로 내실을"

조계종 교육원, 12일 승가교육 개선 방안 종책 세미나

출가자 감소, 교육환경에 영향
교육기관 학인 정원 미달 속출
통합적 종단 도제 교육 어려움

14개 승가대학 6개 축소안 등
교육원 학제 개편 방안 제시

교육기관 입장차 명확히 확인
"전통교육 중요" 주장들 다수
"기관 통합…교육 일원화" 의견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년 출가자 수 150명 선이 무너져 올해에는 110명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출가자 감소는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학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7월 12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종책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승가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학년별 정원 채운 교육기관 2곳뿐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현재 승가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단 승가교육 학제 시스템 변화의 당위성은 분명하다. 당장, 기본교육기관들이 학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기본교육기관 14개 사찰 승가대학 중 종법이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정원 10인을 충족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총 학인 정원 40인을 채운 교육기관은 4곳이었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학년별 입학정원인 120명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본교육기관임에도 이질적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찰승가대학은 교과목 · 교육시간 · 교수 확보 · 예산 등 교육환경이 취약하며, 중앙승가대는 학년 중심의 구조가 사미(니) 교육에 적합지 않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동국대의 경우 세속적 교육환경으로 출가자로서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급격한 교육환경에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자가 100명 선으로 줄어들면 교육기관 학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계획적 학인 수급, 통일적인 교과과정 운영, 종단 차원의 계획적 인력 양성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기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줄이고, 합치고… 교육원 제시 개선안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교육원은 행자교육 · 기본교육 · 전법교화활동에 거쳐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기본교육 부분에 집중됐다. 교육원은 기본교육 기관 조정안으로 △사찰승가대학 수를 14곳에서 6곳으로 조정(사미 4 · 사미니 2) △중앙승가대만 기본교육기관으로 운영 △동국대 · 중앙승가대 통합해 '동국대 중앙승가대학 캠퍼스'로 전환 △기본선원을 선 지도자 운영을 위한 2년제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수학기관 조정 방안으로는 △기본교육과정 3년으로 단축 △기본 · 전문교육과정 '3+2' 년제로 통합해 의무교육과정으로 운영 △기본 · 전문교육과정 '2+2' 년제로 통합해 의무교육과정으로 운영 등을 내놨다.

교육기관마다 상반되는 입장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원의 개선안에 각 기본교육기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당장 적정 수 조정안에 영향을 받는 교구본사, 사찰승가대학, 기본선원 등에 집중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교육원의 종책이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경과 율을 수학하며 자신의 수행 목표를 정하는 것이 기본교육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차라리 전통 강원 교육을 부활해 기본 교육을 받고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는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화사 승가대학장 양관 스님은 "교육원이 너무 수치에 매몰됐다"면서 "통일적 교육은 필요하지만 너무 획일화되어도 안된다. 기관 통합은 전통적 승가 모습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도 기본교육기관 축소와 수학기간 조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찰승가대학의 강점은 삶의 지혜를 몸소 익히며 수행공동체 생활 속에 육화합(六和合)의 이론이 직결되는 삶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승가교육의 시스템적 혁신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은 "사찰승가대학이나 동국대, 기본선원 등을 기본교육기관서 제외하고 통일된 공간에서 양질의 통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원은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승가교육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며 "추후 관련 위원회 구성,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종회를 통한 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禪불교 세계화 전진기지 '첫 삽'

에서 첫 삽을 뜨는 참가 대중의 모습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전세계에 알릴 '문경세계명상마을' 기공식이 7월 12일 문경 봉암사 인근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1000여 불자 대중이 참여해 한국불교 세계화와 선수행의 현대화를 기원했다. 사진은 기공식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노덕현 기자

"텀블러 사용으로 불살생계 실천해요"

불교환경연대, 일회용품 소비감소 위한 캠페인 전개

"내가 마신 음료 한 잔이 고래, 거북이 등 바다 생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대신 집에 있는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제1계율인 불살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9일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정기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캠페인 역시 활동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7월 8일 고양 금륜사는 불교환경연대와 '1회용품 쓰지 않는 녹색사찰'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동참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은 7월 9일~8월 30일 약 2달 동안 집중 시행되며, 모음과 나눔으로 나뉜다. 먼저 모음은 기부할 텀블러를 불교환경연대나 협력사찰(서울 조계사 · 봉은사, 고양 금륜사)로 가져간 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된다. 나눔은 환경보전 기금으로 쓰일 기부금을 원하는 만큼 내고 텀블러를 골라가는 방식이다. 한편, 불교환경연대 측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부 및 협력사찰서 텀블러 나눔을 실시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지원 수습기자

사고

새 연재를 알립니다

본지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연재 두 편을 게재합니다. 일본 불교 성지 시코쿠 순례를 4번 완주한 젊은 불자 작가의 순례기를 담은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이슈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담은 '불교와 환경'입니다. 새로운 연재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시코쿠 순례는 일본불교의 대표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코보대사 쿠카이(弘法大師 空海)가 수행한 자리에 세워진 절들을 일주하는 순례가 바로 '시코쿠 88개소(四國八十八カ所)'입니다. 약 1200km의 코스에 모두 1번부터 88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사찰을 순례하며, 순례자들은 '동행이인'의 정진을 합니다.

4번 완주한 20대 젊은 불자 작가는 "'시코쿠병' 혹은 '버릇'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코쿠 순례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시코쿠 순례길을 젊은 불자의 눈으로 소개합니다.

불교와 환경



살충제 계란 파동, 라돈 침대 사태, 미세먼지 등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불교와 환경〉에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환경 운동계의 불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각 연재마다 사회 이슈가 되는 환경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불자들의 생명살림 행동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살림의 가치관을 펼칠 때입니다.

